

# 책으로 떠나는 신비의 여행, 돈황과 서역

## 동서교류사 실상 밝히는 책들 잇달아 출간...국내 '돈황학'은 아직 답보상태

“天山, 崑崙, 파미르/타클라마칸 사막/타림강/서른 다섯 소수민족이 흥망을 거듭하고/武帝의 원정대가 설치고/현장삼장의 경관대가 지나고/몇세기에 걸쳐서/낙타떼가 비단을 나르는 곳”

실크로드 주변을 배경으로 「돈황」, 「누란」, 「푸른 늑대」 등의 많은 소설을 써온 일본의 대표적 작가이자 시인인 이노우에 야스시가 취재답사 후의 감격어린 감흥을 적어내린 「실크로드」라는 현시의 일부본이다. 우아하기 이를 데 없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길은 일찍이 중국 고대 사서인 「한서」의 「西域傳」에 처음 등장한 이래 ‘서역’이라는 이름으로 한때의 융성했던 문화를 간직한 신비의 땅으로 일컬어져 왔고, 그 중심지였던 ‘돈황’의 이름을 빌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돈황학’을 낳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조차도 “이민족이 살고 있는 서방지역”으로 치부되며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이 지역은 그러나, 현대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서쪽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며 실크로드라는 동서문화 교류의 요로를 만들면서 그 역사적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 취재답사기 주중 이루는 번역서들

금세기초부터 이 지역에 대한 활발한 발굴 작업을 벌였던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그리고 뒤늦게 돈황학 열풍을 일으켰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는 아직 이 방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일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연구서가 하나 둘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간헐적으로 소개됐던 번역서들도 재조명되고 있어 국내 돈황학 연구의 향방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국내에 소개된 돈황 관련서들은 주로 일본 저자들의 탐방기로부터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연전 텔레비전 특집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 방영돼 높은 시청율을 기록했던 ‘실크로드’의 내용을 고스란히 책으로 옮긴 「실크로드」(전12권, NHK 취재팀, 김군 외 옮김, 서린문화사)가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일본 NHK 특별취재팀의 방대한 취재여행기인 이 책은 장안에서 출발해 돈황, 누란, 투르판, 파미르고원, 이란, 이라크, 소련을 거쳐 시리아, 터키에 이르는 대장정을 꼼꼼한 기록과 적잖은 화보에 담았다.

「실크로드, 인물과 역사」(陳舜臣, 서석연 옮김, 해동문화사) 역시 74년 봄, NHK 중일

합동 취재팀에 참가했던 저자의 취재답사기다.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대거 참가했던 이 취재답사의 보고서격인 이 책은 그러나, 단순한 기행문의 수준을 넘어 중국 역사에 대한 학자다운 해박한 지식을 기본으로 한 ‘이야기 역사책’으로 흥미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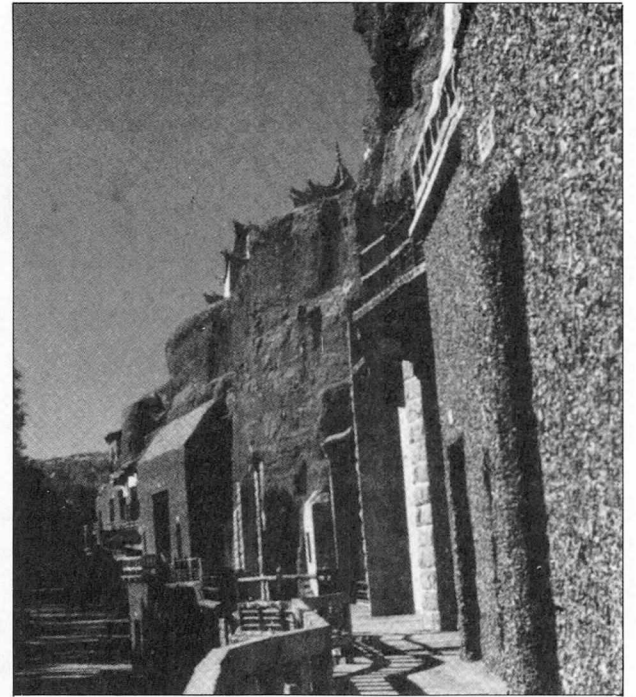
본격적인 학술서로는 일본 와세다대 교수인 나가사와 가즈도시의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이재성 옮김, 민족사)가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까지 아우른 역저로 평가받는다. 한때는 세계문화의 가교였으나 현재는 완전한 몽환의 세계인 실크로드의 역사를 그간 축적된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갖가지 사료를 토대로 복원시키고 있는 이 책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문화의 교류실태를 동시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고대로 북쪽의 유목민족과 남쪽의 농경민족의 끊임없는 세력다툼의 장이었던 동서 투르케스탄을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삼아, 이 지역에서 창출된 동서 양문화권의 독특한 혼합문화가 인근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서역여행가’들의 흥미진진한 여행기를 곁들여 읽는 재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하남성과 감숙성에서 출토된 彩陶의 서방기원설을 주장하는 등 다소 논쟁적인 부분도 눈에 띈다.

### 교류사에 초점 둔 국내연구서 주목돼

이 방면의 국내저술은 전문 학술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은 개론서나 입문서라기보다 특정 시기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특수사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서역간의 교류사 혹은 영향사적 측면이 강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이슬람 교류사」(이희수, 문덕사)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이슬람문화 전파과정을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춰 조명하고 있다. 해상 접촉기(7~12세기), 실크로드접촉기(13~16세기), 근대접촉기(19세기말~20세기초)의 세 시기로 나눠 각 시기별 교류성격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우리나라와 이슬람의 접촉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몽골의 아시아 정복으로 활성화된 동서문화교류의 결과로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한반도 진출과 그에 따른 문화적 영향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여말선초에



현재 중국의 서북단에 해당하는 돈황의 鳴沙山莫高窟.

해당하는 시기로 이후 15세기에서 19세기말에 걸쳐 양문화권의 접촉은 공백기에 빠지게 된다.

저자는 동양문화사 연구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도 그간 학계에서 소외돼온 중앙아시아와의 교류사에 눈길을 돌릴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더욱이 양문화권의 교류는 천년 이상의 오랜 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상호영향이 지대했음을 강조한다.

「新羅·西域交流史」(무함마드 칸수, 단국대출판부)는 동아시아에로의 이슬람문화전파사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중세 한반도와 서역간의 관계사를 다룬 최근의 역저로 평가된다. 중세 아랍문헌을 비롯해 국내외에 단편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각종 사료들을 종합, 실크로드의 동단을 중국으로까지만 인정했던 기존의 학설을 부정하고 고대로부터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던 육·해 양로를 시대별로 고증함으로써 동서문화교류의 폭을 한반도에까지 넓혔다는 점이 특히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저자는 중세 아랍문헌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미 천여년전에 한국(신라)의 존재를 알고 서방세계에 소개한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들이었다는 사실과 아랍·이슬람제국과 신라와의 교류가 실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삼국사기」 등 우리 문헌과 고분출토 유물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향료와 보석, 모직물, 공예기법을 비롯한 각종 서역문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교가 전입됐다는 불교 南

來說을 주장, 종래 北來說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현재 단국대 사학과 초빙교수.

교류사에 초점을 둔 예의 연구서들과는 달리 「돈황문화와 예술」(이수용 편저, 건국대출판부)은 이 지역의 문화, 특히 문학과 회화미술이 주변에 끼친 영향을 집중조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돈황가사와 돈황변문으로 대표되는 돈황문학은 宋詞와 唐의 민속문학, 나아가 후대의 소설문체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는데, 우리나라 고전문학에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특히 문체에 미친 돈황문학의 영향을 구체적 작품분석을 통해 실증해내고 있는 이 책은 중국 역대의 佛畫와 塑像, 음악, 무용, 복식 등에도 돈황예술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같은 최근의 몇몇 성과를 제외하면 국내 돈황학 관련연구는 전반적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진단이다. 현재 이 지역이 가장 낙후된 문화권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돈황학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가운데, 비록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실질적 이유이긴 하지만 근년에 와서 두 문화권의 접촉과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우선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교류사에서부터 돈황학 연구의 체계적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 정소연 기자